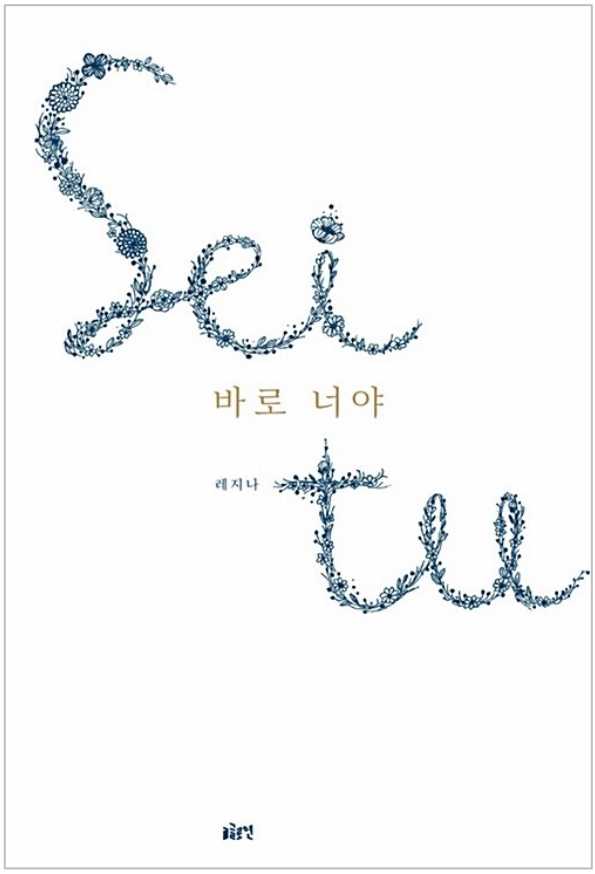
바로 너야

레지나 지음



주제	생명 탄생의 찬란함을 느끼고 나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기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생명, 탄생, 생명존중, 찬란함, 자아존중, 별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5-01]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가진다. 도덕 [6도 04-01] 긍정적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 삶의 태도를 습관화한다. 창의적체험활동_자율활동영역 및 범교과_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주간 활용 생명의 귀함을 이해하고 내 존재 자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작성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도,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도, 또 사람이 아닌 생명들 또한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과 힘찬 에너지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작가는 우주 그 속에서 홀로 반짝이던 작은 별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과정을 통해 보여준다. 특별히 이 책에는 작곡가 김현이 만든 같은 제목의 음악이 담겨 있어, 그림이 표현하는 이야기에 또 다른 감각으로 깊이를 더하고 있다. 독자들은 『바로 너야』가 전해주는 공감각적인 아름다움의 향연 속에서 축복과 찬란함이 함께 했던 자기 존재의 근원으로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

■ 학습 목표

· 그림책을 읽고 인상 깊은 장면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다.
· 음악을 듣거나 낱말을 떠올리며 어울리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 생명 탄생의 찬란함과 신비로움을 느끼고 나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바로 너야』는 우아하고 신비로운 그림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음악을 함께 들으며 책장을 넘긴다면 그 감동은 배가 된다. 그림책의 시작과 끝에만 글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그림이 서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장면마다 오래 눈길을 주며 그림의 변화를 살피고 의미를 찾게 된다.

생명 탄생의 찬란함과 신비로움을 아름답게 표현한 그림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림을 설명하고 해석한다면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림책 읽기를 어려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림책을 함께 보며 떠오르는 것, 느낀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은 중요하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사실 읽기 전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이 책의 관련 주제어가 '생명', '탄생'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내 존재 자체의 존귀함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힘찬 에너지와 아름다운 사랑으로 탄생한 '나'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자아 형성 및 자아존중감의 토대가 될 것이다.

수업 준비물 프리즘 카드, 색칠 도구, 도화지, 가위, 검색용 스마트 기기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이미지로 표현하기 - 음악을 감상하고 이미지로 표현하기 - 단어를 떠올리며 이미지로 표현하기 표지 살펴보기	2차시
읽는 중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그림책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그림 살펴보기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 그림책을 읽은 소감 나누기	
읽은 후	이미지 찾기 - 주제에 어울리는 이미지 프리즘 카드 찾기	1차시
	음악으로 표현하기 - 주제에 어울리는 음악 찾기	2차시
	시 낭송하기 - 분위기를 살려 시 낭송하기	
	【선택 활동】 - 그림책 필사하기 - 내 이름 꾸미기 - 만다라 색칠하기 - '나는 ( ) 사람이다' 문장 만들기 - 우리 가족 탄생기 또는 나의 태몽 듣기	선택활동

읽기 전

1. 이미지로 표현하기

■ 음악을 감상하고 이미지로 표현하기

- 눈을 감고 들려주는 음악을 들어봅시다. 음악을 들으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봅시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 드나요?

  예: 신비로워요. / 차분해져요. / 평화로워요. / 은은하고 우아해요.

  물에서 백조가 평화롭게 쉬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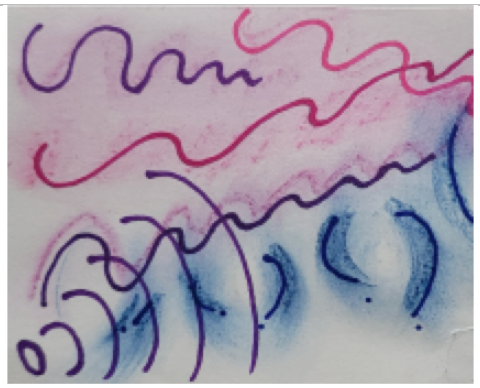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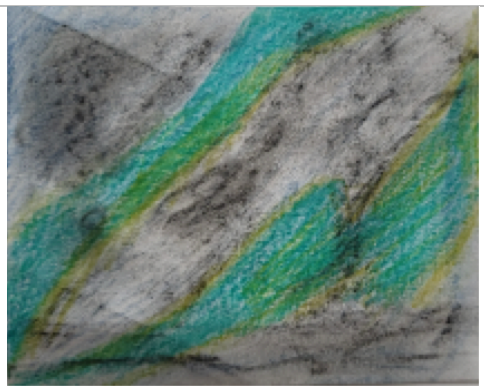
  발레리나가 우아하게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마치 오로라를 보는 느낌이에요.

  호수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떨어진 물방울이 퍼지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우주의 신비로움과 우주 여행을 하는 느낌 같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 음악을 들으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점, 선, 면, 형, 색을 이용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어울리는 표현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해 표현해 봅시다.

	
신비한 분위기의 음악을 들으니 보라색과 자주색, 부드러운 곡선이 떠올랐어요.	검푸른 밤하늘에 나타난 옥빛의 오로라를 표현했어요.

- 그린 그림을 칠판에 모두 붙여놓고 음악을 다시 들어봅시다.

Tip.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음악만 먼저 들려준다. 뒤표지 또는 속표지에 음악 '바로 너야'(김현 작곡)를 들을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다. 또는 글로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악 재생시간은 5분51초) 그림을 작은 종이에 그려서 부담 없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음악 듣기:

■ 단어를 떠올리며 이미지로 표현하기

- '생명', '탄생'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예: 아기 / 새싹 / 씨앗

- 떠오르는 이미지를 종이에 그려봅시다.

‘생명’, ‘탄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기

■ 이미지 비교하기

- 앞에서 표현한 그림과 비교해봅니다.

  예: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느낌은 추상적으로 표현했고 낱말을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 소감 나누기

  예: 같은 음악을 듣고 표현하고, 같은 낱말을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렸는데 친구들마다 다 다르게 표현해서 신기해요.
  음악을 듣고 표현할 때는 음악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실루엣이나 선, 면, 색으로 표현되었으나, 단어를 연상하고 그리니 구체적인 모양이 나타나게 그리게 되었어요.

2. 표지 살펴보기

■ 책 소개하며 표지 살펴보기

-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바로 너야』 입니다. 이 책은 생명과 탄생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주제어 중에서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 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제목이 금색으로 표지 가운데 작게 적혀 있어요. 뭔가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들어요.
  식물 줄기가 덩굴처럼 글자 ‘Sei tu’를 꾸몄어요.
  표지의 질감이 특이해요. 오돌토돌 입체감이 느껴져요. 마치 벽지 같아요

- 검정색 면지 아래쪽 ‘Sei tu’는 이탈리아어로 ‘너야’, ‘당신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안내합니다.
- 속표지에 음악 ‘바로 너야’(김현 작곡)를 들을 수 있는 QR코드가 보입니다.

Tip. 교사가 그림책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표지의 질감을 함께 만질 수 있도록 한다.

읽는 중

1.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그림책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이 그림책은 글이 거의 없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의 시작과 끝에만 글이 있습니다. 음악을 함께 들으며 그림책

을 천천히 감상해 봅시다. 그리고 느끼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 첫 페이지에 있는 작은 점은 무엇일까요?

  예: 별 / 나 / 생명

- 작은 점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다른 흰색 점들은 무엇일까요?

  예: 가족이나 친구 같은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 작은 점이 점점 커지는 모습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내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 세포 분열하는 모습이에요.

- 다른 금색 점이 나타났어요. 두 개의 점이 점점 커지더니 하나로 합쳐졌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생명의 탄생을 표현한 것 같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된 걸 표현한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만나서 인간 생명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 작은 금색 점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점과 꽃들은 무엇일까요?

  예: 엄마, 아빠의 사랑 /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 /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큰 꽃은 무엇일까요?

  예: 나 / 자기 자신

- 작은 점이 큰 꽃으로 변하는 모습은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나요?

  예: 작았던 내가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요. / 수정란이 자라는 모습 같아요.

Tip. QR코드를 활용하여 음악을 들으며 그림책을 함께 본다.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림책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그림책을 천천히 넘기며 한 장면에 20초 이상 머물 수 있도록 한다.

■ 그림 표현 살펴보기

- 주로 어떤 색으로 그림을 표현했나요?

  예: 검정색 바탕에 흰색과 금색을 썼어요.

- 작가는 왜 금색을 사용했을까?

  예: 생명이나 내 존재 자체가 귀하고 소중해서 황금색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 앞면지와 뒤면지를 비교해 봅시다. 작가는 왜 앞면지와 뒤면지를 다르게 구성했을까요?

  예: 앞면지는 검정색인데 뒷면지는 금색이에요. 앞면지는 내가 탄생하기 전을 검정색으로 표현했고 뒤면지 금색은 생명 탄생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 같아요.

- 전반적으로 그림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림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아름다워요.

  배경색이 어두워서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금색과 흰색을 사용해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워요.

  반복되는 그림이라 단순한 것 같은데 공들여 그린 것 같기도 해요.

2.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마지막에 큰 꽃으로 탄생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아름다워요.

  두 금색 원이 만나 하나로 합쳐지고 크게 변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수정란을 표현한 것 같아요.

■ 그림책을 읽은 소감 나누기

- 그림책을 함께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예: 음악과 그림책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며 그림책을 보니 더 실감났어요.

  그림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 그림책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 작가가 이 그림책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림과 음악으로 생명이 탄생하는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을 느껴보고 내 생명과 존재 자체를 존중하라는 것 같아요.

  생명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Tip. 그림책을 읽은 소감을 나누고 그림책을 쓴 의도나 그림책에 담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느낀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읽은 후

1. 이미지 찾기

■ 주제에 어울리는 이미지 프리즘 카드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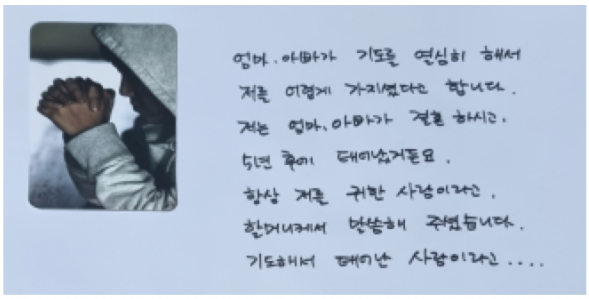
- '생명', '탄생'을 떠올리며 카드를 한 장 고릅니다. 왜 그 카드를 골랐는지 돌아가며 이야기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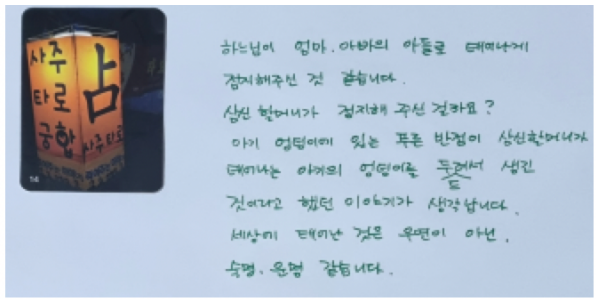
  예: 제가 고른 이미지 프리즘 카드는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리는 게 떠올라서 골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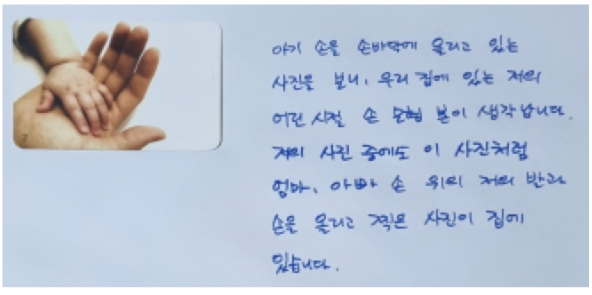
  저는 해가 떠오르는 사진을 골랐어요. 태양은 하나밖에 없고 또 세상 모든 것들을 밝게 비추잖아요. 생명도 단 하나밖에 없고 생명이 탄생하면 관심과 축하를 받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골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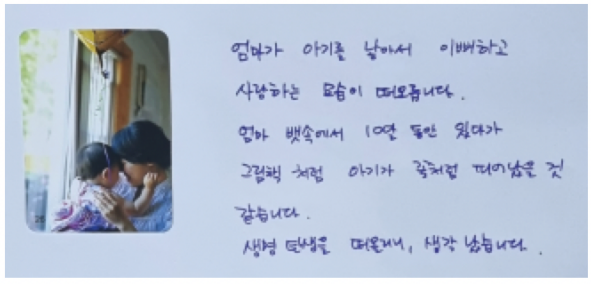
Tip. 이미지 프리즘 카드를 고르고 적어서 발표할 수도 있다.

예:









Tip. 이미지 프리즘 카드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촉진하며 소통의 매개가 된다. 이미지 프리즘 카드를 활용하면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2. 음악으로 표현하기

■ 주제에 어울리는 음악 찾기

- ‘생명’, ‘탄생’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봅시다.
- 자신이 고른 음악을 친구들에게 들려줍니다. 음악을 다 들은 다음, 그 음악을 들은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봅시다.
- 내가 고른 음악을 들은 친구에게 그 음악을 선택한 까닭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 저는 클래식 태교 음악을 검색해서 모차르트 클래식 모음을 찾아왔어요.

  저는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를 골라왔어요.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라 ‘모두 다 꽃이야’ 노래를 찾았습니다.

Tip. 검색용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음악을 검색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또는 미리 과제로 제시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음악을 골라오면 교사가 아이들이 찾은 음악을 들려주며 전체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

3. 시 낭송하기

■ 분위기를 살려 시 낭송하기

- 그림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글은 마치 시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선생님이 읽어주는 글을 들어봅시다.
- 각자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살려 어울리는 목소리로 낭송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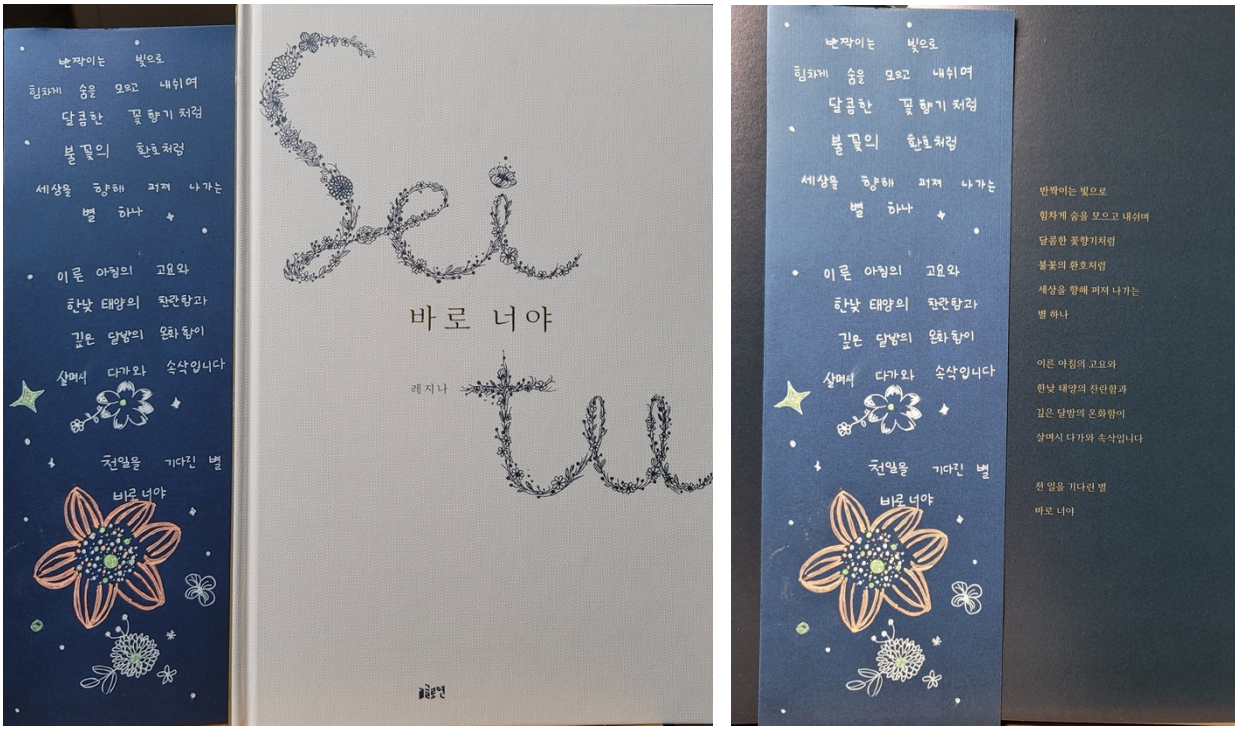
Tip. 수록된 음악을 배경으로 시를 낭송한다. 활동2에서 고른 음악이 배경 음악으로 적절하다면 배경 음악으로 사용해도 좋다.

【선택 활동】

1. 그림책 필사하기

- 그림책 마지막에 나오는 글(시)을 옮겨 쓰고 어울리는 그림 등을 넣어 봅시다.

  예: 군청색 색도화지에 흰색 펜으로 필사하고 형광빛이 나는 펜으로 그림책 속 그림을 비슷하게 표현함.



2. 내 이름 꾸미기

- 내 이름을 생명과 탄생 등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꾸며 봅시다.

  예: 내 이름을 꽃과 하트 이미지로 장식하기

3. 만다라 색칠하기

- 그림책 속 그림은 명상그림 같기도 합니다. 만다라 문양을 색칠하며 '생명', '탄생', '존재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Tip. 만다라(Mandala)는 수행자가 명상을 통하여 우주의 핵심과 합일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안내도와 마음 상태를 형상화한 것이다. 만다라를 그리는 과정 자체가 명상이기도 하다. 만다라 문양은 검색을 통해 무료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4. '나는 (　　) 사람이다' 문장 만들기

- 내 존재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말이나 나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넣어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또는 자성 예언처럼 나에게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주는 말을 넣어 봅시다.

  예: 나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 용기 있는 / 가장 특별한 /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 친구들과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돌아가며 말해 봅시다.

Tip. 선택활동2의 내 이름 꾸민 것과 선택활동3. '나는 (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두 활동 결과를 연결하여 동영상을 만들어 봐도 좋겠다. 동영상을 함께 공유하고 소감을 나눌 수 있다.

5. 우리 가족 탄생기 또는 나의 태몽 듣기

- 가족과 우리 가족이 탄생하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 나누거나 가족으로부터 나의 태몽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Tip.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면 이야기가 풍부해진다.

Tip. 이 밖에 글로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바로 너야』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겨울별　이소영 글·그림

세상의 끝에서 긴긴 잠을 자던 겨울이는 종이 울리면 깨어나 여행을 준비한다. 하얀 눈가루와 깜깜한 밤 가루를 넣은 가방을 들고 세상속으로 매년 똑같은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모두들 겨울을 피하는 것만 같아 겨울은 몰래몰래 다닌다. 그때 혼자 다니는 한 소년이 겨울의 눈에 들어온다.

혼자 집에 들어가는 아이는 눈을 뿌려줘도 심드렁하니 좋아하지 않는다. 겨울은 자신이라도 함께해 주고 싶어 아이에게 다가가지만 겨울이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갔다는 소년은 “겨울이 싫어!”라며 소리친다. 그러자 겨울은 아이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뒤 손을 잡고 또 하나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도와준다. ‘겨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동생을 맞는 아이의 모습과, 추운 계절인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함께’의 의미를 더불어 생각해보게 한다.

#겨울 #겨울분위기 #함께 #가족 #동생 #생명

별소년　최지혜 글 · 레지나 그림

어릴 때의 사고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쌍식이를 또래의 아이들은 '병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고요로 둘러싸인 쌍식이의 내면은 그 누구보다 맑고 따뜻하다. 그림 작가에 의해 푸른 별에 감싸인 모습으로 표현된 쌍식이는 그런 깊숙한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온 몸이 빛나는 푸른 소년이 들판을 달리는 모습은 그가 받아들이는 세상의 투영이기도 하다.

학교를 그만두고 뒷동산에서 염소 떼와 한나절을 보내던 쌍식이는 소년이 되어가며 명절 때마다 시골에 내려오는 미현이에게 마음이 쏠려간다. 세상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쌍식이지만 사랑일지도 모를 심장의 쿵쾅거림은 아주 선명하게 듣고 느낀다.

그런 쌍식이에게 찾아온 미현이는 기쁨이자 슬픔이다. 만나면 한없이 기쁘고 만나지 못하면 또 한없이 슬픈 그런 존재…. 미현이를 만나지 못하는 슬픔이 너무 깊고 커지자 쌍식이는 저 하늘에서 늘 미현이를 바라볼 수 있는 별이 되어간다.

왕따, 장애, 사랑의 열병, 그리고 죽음. 이 힘든 단어들이 쌍식이를 둘러싸고 있기에 그를 보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따뜻하고 아름답다. 글과 그림의 조화 속에서 쌍식이의 눈으로 보여주는 세상이 눈부시게 순수하지만, 슬픔의 겹에 싸인 진한 아름다움이 차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움 #외로움 #소외 #장애 #사랑 #슬픔